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마약류범죄의 예방 및 치료재활 사례 연구

이연우* 김치용**

*동의대학교 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동의대학교 ICT공과대학 게임애니메이션공학 전공

e-mail : namoo1231@gmail.com, kimchee@deu.ac.kr

Prevention and Treatment Rehabilitation of Drug Crime Using Broadcasting Contents

Yeon Woo Lee* Chee-Yong KIM**

*Graduate School of Storytelling, Dong-Eui University

**Major of Game Animation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중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폐해를 대중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돕고, 마약류의 접근 용이성을 시사해 일차적으로는 마약류 범죄의 예방을 이함에 있고 더 나아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가가 아닌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마약사범들의 치료재활에 용이하도록 콘텐츠를 활용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작금, 언론을 통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과 재벌 자녀들의 마약류 범죄의 문제가 단순히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마약 중독의 문제는 어느 날 느닷없이 나의 이야기, 나의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영화, 뮤지컬, 드라마, 도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대중의 마약류의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사회 지도층들의 인터뷰 내용으로 증명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치료재활과 예방의 효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조사 연구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마약류범죄의 치료재활과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폐해를 대중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돕고, 마약류의 접근 용이성을 시사해 일차적으로는 마약류 범죄의 예방을 이함에 있고 더 나아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가가 아닌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마약사범들의 치료재활에 용이하도록 콘텐츠를 활용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마약류에 대한 언급이 선진 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마약류가 우리의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막연한 인식과 마약퇴치 광고 등을 노출시킴으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TV광고,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등 방송콘텐츠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마약류의 개념과 한국의 마약범죄 실태

2.1 마약의 개념과 위험성

2.2 마약사범의 실제 사례

산실제 마약류가 우리 생활 가운데 근접해 있음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사례1. 임산부 - 화장품 방문 판매자를 통한 마약 중독

사례2. 청소년 - 노래방 음료수를 통한 마약중독

2.3 한국 마약범죄의 실태와 국민인식도

2017년 5월 검찰통계시스템 ‘마약류압수실적’에 따르면 5월 월별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은 1,510명으로 전년도 동기(1,078명) 대비 40.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마약사범의 치료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마약사범 1명당 X 100명’으로 봐야 한다고 한다.

유형별 마약류사범 단속 구성비는 투약사범 51.9%, 밀매사범 29.9%, 소지사범 7.6% 순이며, 밀조, 밀수, 밀매사범(공범사범)은 2,003명으로 전년도 동기(1,546명) 대비 29.6%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29.3%), 노동(4.3%), 서비스업(1.4%) 순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면, 연령별로는 30~40대가 전체 마약류사범의 59.4%를 점유하고 있다.

지역별 단속현황은 인천, 경기, 서울, 부산 지역 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의 49.1%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마약류 압수실적은 24.8kg으로 전년 동기(20.3kg) 대비 22.4% 증가했다. [1]

2018년 마약류 심각성 국민인식도는 평균 75.7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마약류의 위험성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는 수준”으로 해석된다.

국민인식도는 연령이나 학력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7.8점), 대전/충청/세종(76.7점)순으로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대졸이상(77.0점) 등 학력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80.3점), 자영업 종사자(77.3점), 화이트칼라(75.9점)순으로 높았고, 반면 대학(원)생(65.3점)은 가장 낮았다.[2]

3.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인식개선과 치료재활의 긍정적 사례

3.1 뮤지컬 ‘미션’ 소개

뮤지컬 ‘미션’은 실제 마약 회복자들의 사례들을 극화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이야기 소재의 실제 주인공들, 즉, 마약 회복자들이 배우로 출연해 공연함으로써 극에 대한 실제감과 감동을 배가시킨 점을 들 수 있다. 2017년 제 11회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DIMF) 특별초청작으로 선정되어 공연하였고,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에 노미네이트되었다. 또한, 2017년 거창 국제 연극제 오프닝작으로 선정 공연되어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그림 1. 뮤지컬 미션 공연실황 장면

3.2 뮤지컬 ‘미션’을 통한 대중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료재활의 긍정적 효과

뮤지컬 ‘미션’을 관람한 박치학 000대표는 ‘이 시대가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문제를 수면위로 드러낸 이런 문화 공연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중독자들의 문제를 파헤쳐 준 것 같아 좋았다. 그리고, 굳이 마약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개인 속에 감추어진 문제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뮤지컬이 세계적으로 공연이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김이향 대한약사회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장은 ‘많은 사람들이 마약의 문제를 특별한 사람들만의 문제로 여기고 있는데 공연을 통해 중독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중환 서울시약사회장은 ‘마약이 얼마나 위험하고 사회에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뮤지컬을 통해 홍보에 용이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영호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20여년 간 중독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뮤지컬을 통해 내가 좋은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나의 미션이 무엇인지 더 확고해져서 감사하다. 또한, 중독자들의 재활을 내가 돕고 있다고 여겼는데 뮤지컬에 배우로 참여한 회복자들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나 자신이 회복되는 감사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들이 계속 발전하여 사회에 공헌하기를 바란다.’

문화 전 국회의원은 ‘이런 뮤지컬을 일반인들만이 관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관람을 독려해 예방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조성남 을지대학병원장은 ‘회복자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하여 공연한 것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 뮤지컬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중독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고, 중독의 문제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깨달으므로 더 나은 삶의 디딤돌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중독자들과 회복자들이 뮤지컬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뮤지컬 공연을 교도소에 계신 마약사범들이나 그 가족들에게도 공연되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마약 중독의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은 ‘중독자들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껴안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한국의 마약문제와 예방과 재활이 동시에 발전되어야 하는데 예방교육은 오랜 시간을 통해 충분히 경험이 쌓였다고 볼 수 있는데 재활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취약하고 발전 단계에 있다. 재활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이런 뮤지컬 같은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 결론

‘따라꾸미’의 저자 이재규는 ‘중독의 위험성보다 저들을 안을 수 없는 이 사회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

한다' 고 했다. [4] 문화를 이끄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숙고해야할 내용이라 여겨진다.

작금, 언론을 통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과 재벌 자녀들의 마약류 범죄의 문제가 단순히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마약의 위험성은 앞선 사례에서도 밝혔듯이 어느 날 느닷없이 나의 이야기, 나의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무섭도록 넓게, 깊게 퍼져있는 마약의 문제를 이제는 수면위로 떠올려 치료재활하고, 그에 앞서 예방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일 것이다. 문화가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은 가히 가공할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뮤지컬 미션'과 같은 공연, '따라꾸미'와 같은 도서, '마약왕'같은 영화, '슬기로운 감빵생활'과 같은 드라마 등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대중의 마약류의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앞선 인터뷰의 내용으로 증명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치료재활과 예방의 효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조사 연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마약류압수실적, 검찰통계시스템, 2017.5.
- [2] 2018마약류심각성 국민인식도 결과보고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월드리서치&컨설팅, 2018.12
- [3] 김민석, “외국의 마약류 중독관리 정책현황”,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정신건강정책포럼. 2007. 12, 61~73쪽
- [4] 이재규, “따라꾸미” 맑은샘, pp269, 2018